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속복교회



2024년 9월 29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주인 삼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Behold
기 도		송윤숙 자매
성경봉독	사도행전 27장 24-44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내가 주인 삼은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최동현 목사
축 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오늘 친교 | 석제우 형제, 최신영자매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 다가오는 10월, 11월에 두 커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송강현 & 장보라 (10월 5일 토요일)
 - Kevin Lee & Magdalena Ledezma (11월 23일 토요일)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09/29	송윤숙	럽셀
10/06	송강현	예수파셀
10/13	장보라	IE종아셀
10/20	강성경	럽셀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 새가족 교육 (3주)
- 세례자 교육 (5주)
- 결혼 학교 (4주)
- 통독 훈련 (매년 1번)
-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0929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도행전 27장 24-44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첫째, 풍랑속에서 육적인 자기중심성에 빠지면 방향 감각을 잃고 탈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 육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밤에 거룻배를 내려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았고, 거룻배는 제한된 수량이었기에 자신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만 의지하여 이기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버리고 자신들만의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선장도 자신은 피신했지만, 승객들에게는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 탈출을 명령하기만 했더라도, 분명 많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을 것입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다른 이들의 생명의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 살겠다는 일념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풍랑 앞에서 제각기 인간 군상이 드러나는데요, 자기만 살겠다고 누군가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결국 파선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군인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눔 질문

Q. 전문성 혹은 은사의 풍성함이 있지만 성품의 성숙함이 부족하여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전문성과 은사가 풍성하면서 안정되고 성숙한 성품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여 이로움을 주는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롤모델, 혹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Q. 우리가 아는 여러 인사들 중에서 다른 이들을 함께 돋보이게 하고 이롭게 함으로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전문성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비전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타인의 생명을 살리며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 공동체 안에서 모두를 연대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31절). 바울이 사공들과 달리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받은 말씀을 굳게 믿었고,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전염되지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전염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함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방치하면, 한 없이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추악한 본질과 끊임 없이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각 멤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지킬 때, 그 선택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서로의 은사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 공동체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는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낙심한 그들 앞에서 “구원” 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 앞에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음식을 먹게 합니다.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나눔 질문

Q.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종류가 다릅니다. 한끼 식사가 큰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던 대화와 만남, 식탁의 교제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낙심하고 어려웠던 때에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운 신앙의 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신앙의 힘과 위로가 있습니까?

Q.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위로와 Support 만큼 다른 이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성장과 성숙은, 내가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나누는 존재로 서야 하겠다는 자각과 함께 시작됩니다.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셋째, 선한 영향력은 나를 통해 누군가의 성품과 삶의 지향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습니다.

- 모두를 복음으로 살리는 열매가 맺힙니다.

바울은 모두를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 모든 죄수들이 살도록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43절). 바울은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과 리더십을 통해 모두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리더십의 모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아닐까요?

결국에는 바울이 모두를 살린 꼴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원들의 탈주를 막았고, 14일간 굶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였고, 무엇보다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게 하였으며,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동승한 죄수들의 생명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바울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를 살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 복음적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편, 이들은 풍랑 속에서 짐을 하나하나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다고 여겼던 짐과 식량까지도 버려야 했습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 인생의 우선순위,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유물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끊임 없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살펴야 합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열거해 봅시다. 관계, 성장, 은사, 비전, 전문성, 물질, 등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그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Q. 여러분이 설정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수정한 적이 있습니까? 나누어 봅시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넷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고후 11: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이미 세 번이나 파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은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바울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했기에, 현재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전의 파선 경험이 지금의 리더십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미리 광야를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왕으로서 또 다른 의미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통해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십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꼭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밑거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을 가장 성장시켰던 고통이나 아픔, 상실이나 상처, 고난이 있습니까?

Q.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을 건설적으로 신앙안에서 잘 소화하지 못해 오히려 쓴 뿌리를 만들고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준 성장, 고통이 준 후퇴를 나누어 봅시다.